朝鮮日報
夕刊 二十一日(日)
本紙朝夕刊十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 遜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製絲家의 橫暴

繭共同販賣制度를廢止하라

一

지난 十八、十九의兩日間 京城에서 朝鮮製絲協會는 臨時總會를 열고 여러가지의決議를하엿는바 이中에잇서 世人의 注目을 끄으는 두가지의重要決議가잇다 卽 첫재는 繭自由市場廢止의陳情이오 둘재로는 原料繭購入難으로해서 朝鮮內 製絲各工場이 모두 一割操短을 實施하기로 된點이다 그러면 이두가지의決議는 무엇을 意味한것인가 이것은 어린羊과 가티 하라는대로 順從만 하여오는朝鮮內 養蠶家들을 傍若無人한製絲家의 발길이 一層 餘地업시 짓밟는것으로 볼수밧게업다 그러고 所謂共販制度밋헤서 養蠶業을하는 朝鮮農民을 마음대로 휘둘누고 一面으로 그들의 忌憚업는 橫暴가 날로 激甚하여감을 더切實히 늣기게 하는것이다

二

이와가튼 重要한決議를 무슨 必要로 製絲家側에서 하게되엇는가。먼저 그들이 말하는 表面의理由는 이러하다 첫재로繭自由市場이 잇는때문으로 共販에만依하야 原料繭을 사드림에잇서 原料繭이不足케되고 할수업시 朝鮮繭보다 高價의 日本內地繭을 移入하야 그不足을채우고잇는處地이다 그럼으로 共販製를 維持함에잇서서 繭自由市場을 廢止하여달나고 當局에陳情하자는것이라고한다 둘재로는 그처럼 原料繭不足이 顯著한때인만큼 現狀대로 나아갈수가업슴으로 各製絲工場은 一割操短을 할수밧게업다는것이다 이로써 結局 두가지의決議가 모두 原料繭購入難과 그不足이라는理由에 共通性을 띄인것을 잘알수가잇다 그런대 繭自由市場은 京城、大邱의單두곳에만 잇슬뿐인데 왜 이처럼 製絲家가 原料繭購入難을 當케되는가 더구나共販이란큰威力을 가진制度밋헤서이런理由를 들게되는가 이것이 오늘에잇서 製絲家들이 以上과가튼決議까지함에 일으게되는核心의點이다 卽朝鮮에잇서서 繭共販制度가생긴뒤로부터 싸혀오는 朝鮮內 養蠶家의不平、不滿은 오로지 共販의買入價其他가 養蠶家에게 不利하고 製絲家側에有利한곳에잇다 이런때문으로 될수만잇스면 共販보다 高價인 自由市場에 팔라는傾向이 날로顯著케되엇다 딸어서 金城鐵壁과가튼 共販만 밋고오는 製絲家는 原料繭購入難이란 當然한結果를 보게되고 비롯오 이對策으로 製絲家는 以上과가튼 決議를 하게된것이다

三

그럼으로 오늘에잇서 原料繭不足을 表面理由로 삼으나 實은 두가지의根本的裡面理由가잇슴을 엿볼수가 잇다 卽 첫재로繭自由市場을 廢止케하야 몰래일 틈업시 共販에依한低價의原料繭을 圖하라는點 둘재로는 一割操短으로서 朝鮮內養蠶業을威脅하야 繭自由市場廢止運動을힘잇게하고 同時에 經營難打開의 一策으로 從業員을 整理하야 經費를 節略하라는데目標를 둔것으로 볼수잇다 이와가티 製絲家는 養蠶業을 조곰도 眼中에 안두고 어듸까지 거의 搾取的利得에 날뛰고잇는것이 너무 歷然한 事實로 眼前에 展開되고잇다 그러나 共販繭出廻는 減少함을 不拘하고 京城大邱의 繭自由市場에는 그出廻量이 늘어가는 趨勢이며 더구나 自由市場에 出廻된 繭의 그半數以上이 日本內地로 移出되고 잇다고한다 이것은 製絲家가 原料繭購入難으로 日本內地에서 繭을 移入함에 對한 一種의 矛盾的 現象이며 또는 朝鮮內 製絲家가 얼마나 養蠶業의 採算을 無視하는 低價購入이엇슴을 밝히 말하여주는것으로 생각할수잇다

四

繭共販制度를 가리켜서 當局者는 日本內地보다 進步的이며 또는 繭生産者保護를 主眼으로 삼은것이라고 말하여온다 그러나 오늘에잇서서 그共販制의 惠澤을 입은者가 누구이냐고 함에 對한 說明을 말치안는데도 以上의事實에 비춰서 製絲家本位의共販이라고 하게되는것이 엇부러 부치는말이 아닐것이다 이點에잇서 當局者는 참으로 朝鮮內養蠶業者의 發展을 爲하라고한다면 製絲家의 橫暴를 制裁하는것이 무엇보다도 當然한일이며 이에 共販制度를 廢止하야 한便에 길을이는 獨占的 弊害를 끈어버려 自由스러운 繭賣買가 公平的 또는 圓滑히 되게하는데 모든弊害가 사러질것이다 딸어서 이에對하야 朝鮮養蠶業의發展을 可히期할수잇슴을 밝히 말하여두는바이다

에國皇帝의演說에 伊國官民大憤慨

事態는一層惡化形勢

伊政府에國에 嚴重抗議 에皇帝의演說은

【羅馬二十日發聯合】伊太利政府當局은 에디오피아 皇帝의十八日의 議會演說을 자못重視하고 잇다 一般으로皇帝의 演說은外部에 發表된것에 比하야 一層激烈한것으로 解釋되는바 上下를 通하야 憤慨하는 程度가대단함으로 事態는 一層惡化의一路를밟게되엇슴은 疑心할餘地가업다

【羅馬電十日發】十八日에디오피아皇帝는 伊太利가에디오피아에對하야 過去四十年來野心을가지고잇섯다는 것을遂行하엿는데 이것은伊太利를誣謗하는것이다 伊太利는 西國에大軍을動員하게되엇는데 이것은 왈왈事件及其後에 屢次의事件이發生하기까지는 考慮치안엇섯다

에디오피아皇帝 하일레실라시에陛下가 議會에서行한 演說은 反에디오피아感情을 일으킨 伊太利軍을 激勵케 하엿는데 그것은 伊太利政府는 아디스아베바駐在公使로 부터 送付되어온 皇帝의 演說全文과 同演說의新聞電報와를 比較硏究한 結果 前者가 後者보다 今伊的인것을發見하엿슴으로 來日政府의名義로서 아디스아베바駐在公使에 訓令하엿다 그리고 伊太利外務當局은 左와如한 反駁的意見을發表하엿다

理事會開催로 伊態度緩和說

【羅馬二十日發聯合】國際聯盟理事會는 드듸어 來七月末 開催키로 決定한것과 關連하야 伊太利政府側도 相當히 軟化의 모양으로 最近에至하야 伊太利는 伊에紛爭仲裁委員에 對한從來의 態度를 多少 緩和하라는듯 官邊에서 報道되고잇는데 右報道는 一般으로 相當히 信賴할만한것이라고 解釋되어 伊太利政府는 伊에 和協案에 對한 第五委員卽 中立國委員의 指名을 許容하야 이로서 局面打開를 圖할것이아닌가 觀測된다 但 右報道는 單히 伊太利의 態度緩和이지도 聯盟理事會開會忌避의 一時的方策이아닌가 하는 疑問이라고보인다

伊에開戰不可避 衝突은時間問題

來二十九日聯盟理事會開會前 伊、軍事行動開始할듯

【카이로二十日發聯合】東阿의戰機가 刻刻으로 切迫되어 에디오피아와 外交通商關係를가진各國政府는 아디스아베바駐箚自國代表機關을保護키爲하야 各其에디오피아 駐箚機關을 聯絡케하야 萬全을 期하기에 汲汲한 狀態이다 特히 英國政府는 아디스아베바駐箚公使兼總領事 하든氏 以下 館員의 安全에 萬全을期하기爲하야 公使館用으로 二十日 多數의 土囊用布袋數千個를 急送하는等 諸般準備를完了하엿다 一般으로 埃及수단方面의英佛等 各國機關의 見解를 綜合하면 伊太利、에디오피아開戰은 거이 難避하리라는意見이一致되여잇는바 남어지問題는何時에戰端이 열닐가하는것뿐이다 特히聯盟理事會를 豫定보담빨니 來二十九日에 招集키로 決定한것은 或은伊太利의軍事行動을 豫定보담 빠르게되게된것이라고 보고잇다 但 에디오피아 一帶는 目下雨期임으로 伊太利도 只今 卽刻에 戰爭을開始키는 困難하리라고 觀測된다

佛國軍艦의大觀艦式光景

歐洲의天地가危機를 包藏하고잇는 此際佛國海軍에서는 프레스트에서 피에트리海相의 檢閱로一九一四年以來行하지아니한 佛國全艦隊의 大觀艦式을擧行하야 各國의 注目을惹起하얏스니 寫眞은海兵檢閱을 行하는피에트리海相一行과觀艦式의壯觀

駐中蘇大使、中國에 攻守同盟을提議

國內統一急務인理由로中國側拒絶

依然不斷念、執拗히運動繼續

【電通上海二十日發】駐中蘇聯大使보고모로프氏는 北中事件發生以來潛行的 活動을 繼續하고잇섯는데 去八日本國政府訓令을受하야急遽上海發 北平에 赴하야 北中에서의 日中提携工作을 監視하는 一方國民政府에 對하야 北中에在한 日本勢力 增大에는 執拗한牽制運動을하고 蘇聯、中國兩國이다 重大脅威를 感한다 萬若日本이中國에 對하야다시엇더한 要求를하는일이잇스면 蘇聯은中國에 對하야武力援助를不惜한다 또가장希望하고 싶은蘇中兩國이 日本의 進出에 對하야 攻守同盟을 締結하는데 잇다고提議한 事實이判明되엿다 右에對하야 中國側은 中國은 日本의 北中工作에는 어느程度까지 此를阻止할意向이어엇다 그러나 國民政府의 가장希望하는바는 차라리 國內統一로 邊境諸省에在한赤化勢力의驅逐이다 라고 拒絶하얏다 그러나보고모로프大使는아즉도斷念안코 目下遽境에雅口하야 北中에在한 日本의 行動을 監視하는同時에 同地駐在中의 汪精衛氏를 歡問하는等 執拗한運動을 繼續하고잇서 그 動靜은注目되고잇다

加奈陀의再報復

日本品에三十三%課稅 東京에傳達키로決定

【電通오타와二十日發】加奈陀首相 베네트氏는 日本政府가 加奈陀의 對日關稅障壁强化의 報復으로 드듸어 通商擁護法을發動한다는 通報에 接하야 對日再報復을 敢行할 決意로서 二十日 左의 方針下에 對日政策을 作成하야 東京政府에 電通하기로 決定하엿다

一、日英兩國은 一九一一年通商에 關하야 差別待遇를 하지안키로 協定을 締結하야 加奈陀政府도 一九一三年 이에參加하엿다

一、加奈陀政府는 日本政府가今般加奈陀商品에 對하야 何等正當한 理由업시 特別附加稅를 課하려는것은 右協約에反한다고 認定한다

一、따라서 萬若 右附加稅가實施되는데잇서서는 加奈陀政府는 卽今 日本商品全部에 對하야 三十三퍼센트(三分之一)의 報復新課稅를 設할밧게업시될것이다

그런데 加奈陀政府는 右對日政策을 作成하야 三十三퍼센트(四分之一)의 再報復稅는 卽時公布할 意向을 가지고잇는데 지금아직 交涉의 餘地가잇다고 觀測하고 聲明書等을 發表하는것을 避한다는 方針을取하고잇다

米陸軍省이議會에 建造費要求 軍用機六百機

【電通華盛頓廿日發】米國陸軍省은 二十日 議會에 對하야 陸軍當局의 空軍整備計劃의 一端으로서 近近 六百機以上의 軍用機建造에 要하는 經費 四千萬弗의 支出을 要求하엿는데 그 內容은 如左하다

追擊機 一七五臺
爆擊機 一五〇臺
攻擊機 二〇〇臺
其他로 總數六百機以上

廣田外相聲明에 伊政府冷靜

杉村大使言明을公式聲明視

【羅馬二十日發聯合】廣田外相의 伊에 紛爭에 關하야 十九日日本政府의 立場을 聲明한것은 歐洲諸國에서는 에디오피아에 對한 道義的支援을 뜻한것으로解釋되어不少히 注目을 끌엇는데 當該國인 伊政府에는 별로衝動을 주지안엇다 卽 伊太利政府側은 杉村大使가 뭇솔리니首相과의 會見席上에서 日本은에디오피아에對하야 何等 政治的關心을 가지지안코 萬一 伊에 開戰의 際에도 中立을 遵守할것이다 라고 述한것을 公式聲明이라고 다시 明確한 解釋을 가엇다고 본者가 相當히 多數인 模樣이다

外國統治無用! 에國外相聲明

【아디스아베바十九日發聯合】에디오피아外相 헤루이氏는 十九日特히 聲明을 發表하야 에디오피아 政府는 斷然 伊太利政府의 委任統治領은커녕 外國政府의 統治는모두 拒否한다는 旨를 確言하엿다

世界偵史

또 한週日을 보냇다。兩國하거대 지난 一週間은「經濟週間」이엇다고도할만큼 經濟를 中心으로하 問題가 簇出하엿다。차례로 이것을 한번 적어보건대 첫재는 經濟共同委員會設置에 關한

日滿協定 이니 日滿經濟關係의 永遠한 合作과 强化를 約定한同協定은 十五日午前十一時 滿洲國外交部에서 日本全權大使南次郎氏와 滿洲國外交部大臣張燕卿氏와의사이에 正式調印을 了하엿다 治外法權撤廢에關한 經濟上調整事項、日滿通貨統制策、關稅問題、經濟聯락에關한問題等

報復關稅 實施問題이다。加奈陀가 各種從價稅를 日本品에 課하야三十六割이란 關稅가되어잇다는것은 熟知의 事實이다。日本은 이 對策으로 日本에 輸入되는 加奈陀品에對하야 從價五割의 報復關稅를 一個年間賦課하기로決定하야 二十日附로서公布實施하게되엇다。日加貿易關係는 前途暗憺한바잇거니와 이때에 또埃及政府는 갑자기

日埃通商 協定廢棄를 또 通告하야 日本綿業者는 또 關稅受難을 豫想하게되엿다。이와가티 日本品의 世界的進出은到處에서 防遏에 遭遇하야 圓貨防遏의 障壁은 日復日 擴大되고잇다。이러한中에 이와 反對로 經濟的으로 接近하든나라가 잇스니 그것은日本을 그사이에 두고 멀리떠러저잇는 米蘇兩國이다 米國務省은 十三日에 突然 通商을 中心으로한

米蘇協定 成立을公表하엿다。그것은 向後一個年間에 蘇聯은 三千萬弗의 米貨를購入하고 米國은 最惠國待遇를 蘇聯에 與한다는 暫定的協定이나 이것이 반듯이 이前提에 피어야할 貸借問題에는 不觸하야 蘇聯만이 존순法適用外로 容赦되거된 것은 重大한 事實이오 또通商協定成立에依하야 一時 疎隔되어던 米蘇가 再接近의 過程을 밟게되얏은 通商貿易뿐만이 아니라 外交的으로 注目할만한 일이다、다음 法貨의 危機로프랑당、뷔송二內閣을 倒壞한 佛國은 終乃 라발內閣에 財政全權을 賦與하엿던바 그것이 奏效로

財政安定 法令 發表하야 大統領의 署名을 어더特別稅賦課와 在鄕軍人恩給削減과 官吏의 減俸으로 約百十億法의 歲出減을 엇게되엇다고하나 國內에는 反對運動이 猛烈하야데모까지 敢行되고잇다 經濟危機를 차고도는佛國은 金本位維持問題와함께 重壓되다。世界를 뒤흔들고잇는

伊에紛爭 問題는 英米의 干涉도 聯盟側의 努力도 다 奏效하지못하고 英國將士의 에國援助說과 아울러 世界의 注目은 늘하지고 伊國의 動員出兵과 에國皇帝의 決戰宣言으로 戰機는 날로 익어가고 風雲은 急을 告할따름이다、英佛伊三國會議召集說도 水泡로 돌아가고 이제는 聯盟理事會에 問題를 옴기고저 二十九日부터 特別理事會를 開催한다고 各國에 通牒을 十九日에 發送하엿스나

國際聯盟 의 無力으로서 解決은 至難할뿐아니라 各國의 外交의 具가된 伊에紛爭이야말로 複雜無雙한 問題로 解決은容易치안라 다시 極東으로 눈을돌려 國境問題를 中心으로한

日蘇關係 의 緊迫한 情勢는 連續되는 兩國의 抗議文交換으로 問題는 重大化하고잇고、日中提携問題를 中心으로한 蔣氏態度와 南京政府의 動向에도 深甚한 注意가 끌리지 안는바아니나

日中提携 問題와 日蘇關係는 두고두고 下回를 보기로하자。

米價、昂騰을繼續하야 最高價格에接近

【電通東京電話】民間米의 供給不足과 天候不順에 依한作況不良豫想으로 最近 米價는 昂騰을 繼續하고잇서 深川正米標準市勢는 二十日은 三十圓十錢이되고 最高價格三十一圓五十錢에漸次 接近하고잇는데 十九日東京米穀事務所에 最高價格에依한 政府米百俵의 賣渡申請이 잇섯다 그리고 이最高價格에依한 政府米賣渡는 昨年十一月二十四日以來의 일로 아즉 標準市勢는最高價格을 上廻치안헛스나 敎賣米中에는 二、三上廻하는것도잇서 今回賣渡申請이 잇슨듯하다

米日爲替

【經濟二十日發聯合】
賣 二十九弗三三 三仙高
買 二十九弗二〇 二仙高

日曜氣配

▲株式=貿易의停頓으로 一般의 氣迷가깁고 他方新規材料도發見되지안음으로 氣配는弱含한狀態이다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鐘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期米=天候不良으로 氣迷가 深하야 昨日 東京에서 最高米價에依한 拂下申請에對하야 僅四十石이 許可되엇슬뿐으로 此는單純히賣方을 괴롭게하는 것이라고보이는바 市勢는 强含이다

▲綿絲=安含

八面鋒

◇ 唯一의 黑人帝國 에디오피아를併呑하라는 伊太利 에國皇帝의 勅語를 評하야 曰、

◇ 人口의 五分의一 二百萬人이 奴隷인데、살어서 奴隷生活을 하는것보다 죽어서 祖國을 防護하라는 말은 矛盾撞着이라고。

◇ 에皇帝의 聲明이 아니나 에皇帝의 意圖는 階級을 超越한民族的 一致를 말슴한것이겟지。

◇ 萬若 伊에戰爭이 勃發한다면 戰後에 올것이 奴隷解放運動일것은 歷史的 運命이證明하는일

◇ 端境期가 아즉도 遼遠한데 쌀갑시 이리 올라서야 살엇는 中産階級이 어찌 사나。

◇ 政府米의 拂下는 이제가 方時。

今日本紙六面

八月號 改造
獄中思索斷片・三土忠造
(天下の注目を集めつゝある帝人事件の關係者、商工相たる氏が、獄門數旬の間にものせる獄想錄—「金持と物持」「米國の誘惑」—を初めとして讀者の胸襟に迫り行文又流麗一讀三嘆せしむ。)
八十錢 送料二錢 東京市芝區新橋 振替東京八四〇二 改造社
▼北支事件の經濟的背景……高橋龜吉
小說 墓參に行く男……張赫宙
小說 獅子と人……室生犀星
小說 帽子……里見弴
小說 木の芽時……深田久彌
千島の原始湖沼探檢……田中阿歌麿
「新生」不敬事件と支那言論界……村田孜郎
歌舞伎に現れた無産者生活……田村榮太郎
癡人の隨筆……齋藤茂吉
江戶巷談 玉川上水の瀧……三田村鳶魚
米國へ迎へて水上、松澤チーム一を鶴
戰爭の數學…竹內時男
▼涼風九景(繪と文)……宮本三郎
▼涼臺人形漫談……武內桂舟
河童の誕生……小宮豐隆
怪奇小說 僧と靈魂……阿部德藏
▼グライダー今昔……北村小松
通譯從軍挿話……上脇進
新裝自由主義の虛妄……大森義太郎
(新裝明自由主義者の理論的根據を檢討し虛妄を鋭く衝く)
山雨雜記……三好達治
財界風聞……菱田友三
文化統制現象の分析……戶坂潤
日本財政は如何に轉換するか……石濱知行
寸評欄 ▼現代經濟誌論……伊藤好道 ▼山の音樂・水の音樂……久禮傳三
北支行……山本實彥
(筆者親しく風雲の北支に入り天津北平より遠く蒙古奧地に獨行し內外の要人に接し炬眼に動く東亞の現勢を洞察して熱の溢れた雄篇を寄せた。全國民の必讀の大文字。)
「東寶」對「花柳界」……明羽三太郎
京洛水害スケッチ(繪と文)……堂本印象
西田幾太郎と田邊元……岡邦雄
重臣ブロック排擊論……山川均
(ファッショの排擊の斷點となれる元老重臣の近狀分析)
▼地圖製作挿話……園部
文壇棋士印象記……永井龍男
諷刺文學論……本田喜代治
▼緊張せる歐洲の新局面……益田豐彥
渡邊崋山……藤森成吉
▼世界情報
▼ペン倶樂部のこと……木村毅
(詩)蝶の跡……丸山薰
銷夏小咄 夏は海水浴に……前田河廣一郎 銀座はコハイ……北原伊三郎 卓上噴水……濱野修 海とプチ・ブル……林二九太
西洋怪奇譚……小栗虫太郎
選擧干涉と新官僚……田中惣五郎
▼『明暗』の漱石……辰野隆
現代學生生活論……大內兵衛
(東大での學生生活調查書の結果に基き教授の考察せる赤裸なる學生々活の諸斷面と冷嚴なる批判と透徹せる斷案而も側々たる子弟への至情の叫は讀者をして現代學生々活の內面に思を深く致さしむ。)

精神病科 腦脊髓神經病專門 入院室完備
京城府外 淸凉里 原病院 院長 原振緖
電光 2643

隨時男女學生募集 朝鮮第一自動車學校 (太平通二丁目)
教育完備한本校는每年六百餘名의男女를養成學費僅四十八圓에免許를取得하고各地에就職이容易한學校는本校에限、就職後三月收入五十圓以上。絕對安全로責任잇는學校는本校뿐이외다
學則請求二錢切手要、電本四〇六八、京城府廳前
自動車新法規及就業免許試驗用地圖發行・運轉手・助手・學生은必히 一冊을 前金一圓三十錢

中部以北에는沛然 穀倉地帶에는未洽

昨夜來京城地方에는豪雨가暴注

湖南의農形은漸不利

그동안 천후는과도히서늘하고 몽몽이계속하야놓어 괴후(乖候)를계속하더니 이십일저녁부터기온이다시오르고 경성구름이모이기시작하야 이날밤아홉시경부터 부슬부슬오기시작한비는 밤자정부터는 퍼붓는듯한호우로되야경성지방을중심으로 각지에비가와는데 이에대한 경성측후소원의 말을 들으면 산동(山東)반도의 상공에 잇는 저긔압이 동으로 밀려와서 조선은그까닭에 비가 왓는데 이번비는 중부이서와중부조선에만히와서 우량은 이십일일아츰여섯시 현재로인천(仁川)의 팔십일(八十一)미리와 경성의칠십륙미리가 가장만코 그다음으로는 강릉(江陵)이 사십일미리 원산(元山)이 삼십일미리 평양(平壤)이 이십일미리이고또 그다음은 신의주(新義州)의 륙『미리』와 부산(釜山)의오『미리』 울산(蔚山)의 사『미리』이고 성진(城津)과 대구(大邱)와 전주(全州)가 모다 이『미리』식이되 웅긔(雄基)가일『미리』에서정작 비를기다리는 전라남북도에엽마오지아니하야가득이나 마른목이 더욱갈지만나게하얏다한다 중복(中伏)이잇슬벗게남지아니하얏고 대서(大暑)가 사흘밧게남지아니하야 여름철이거이 다지나갓고 압흐로이십일이채아니되야 립추(立秋)의가을철을 맛게되지금에이르러 느지나마이제오는이비도대망의남도에 흡족치못한은 이미금년의변사를기우러드린것으로 실로일발적으로 큰걱정인데 이러한이비나마 이십이일새벽이후에는여시개이는형세이라한다

京女高普慶雲會開催

시내재동(齋洞)에잇는 경성녀자고등보통학교(京城女高普)에서는 오는이십오일오전열한시에 본교강당에서 경운회(慶雲會)의모임을열터이라는데 회비는륙십전이며 륙히회원의유아동반을대환영한다고한다

纛島增水二尺 家屋二戶崩壞

이십일 저녁때부터 시작된비가 그대로계속되여 이십일일에들어가서는점점그세를 더하야본격적장마비로 들어가는모양인데 사외성북리(城北里)로부터 흘르든개천은 가일가으로창수되여 동소문밖돈암리(敦岩里)삼선평(三仙坪)압헤잇는석교(石橋)는 오전열한시반경에교상이칠오촌의범람을보아얏뻐스는교통이 불통되엿스며한강(漢江)도 약간증수되는중정오까지에 이척의증수를보앗고 으로 시외뚝섬(纛島)한강상류는 시외하왕십리(下往十里) 팔백구십번지김의행(金義行)소유신축중의팔간와가이동은 린접한동번지정세권(鄭世權)의집울담이 문허지는바람에 전복되여 약이천원가량의손해를 입어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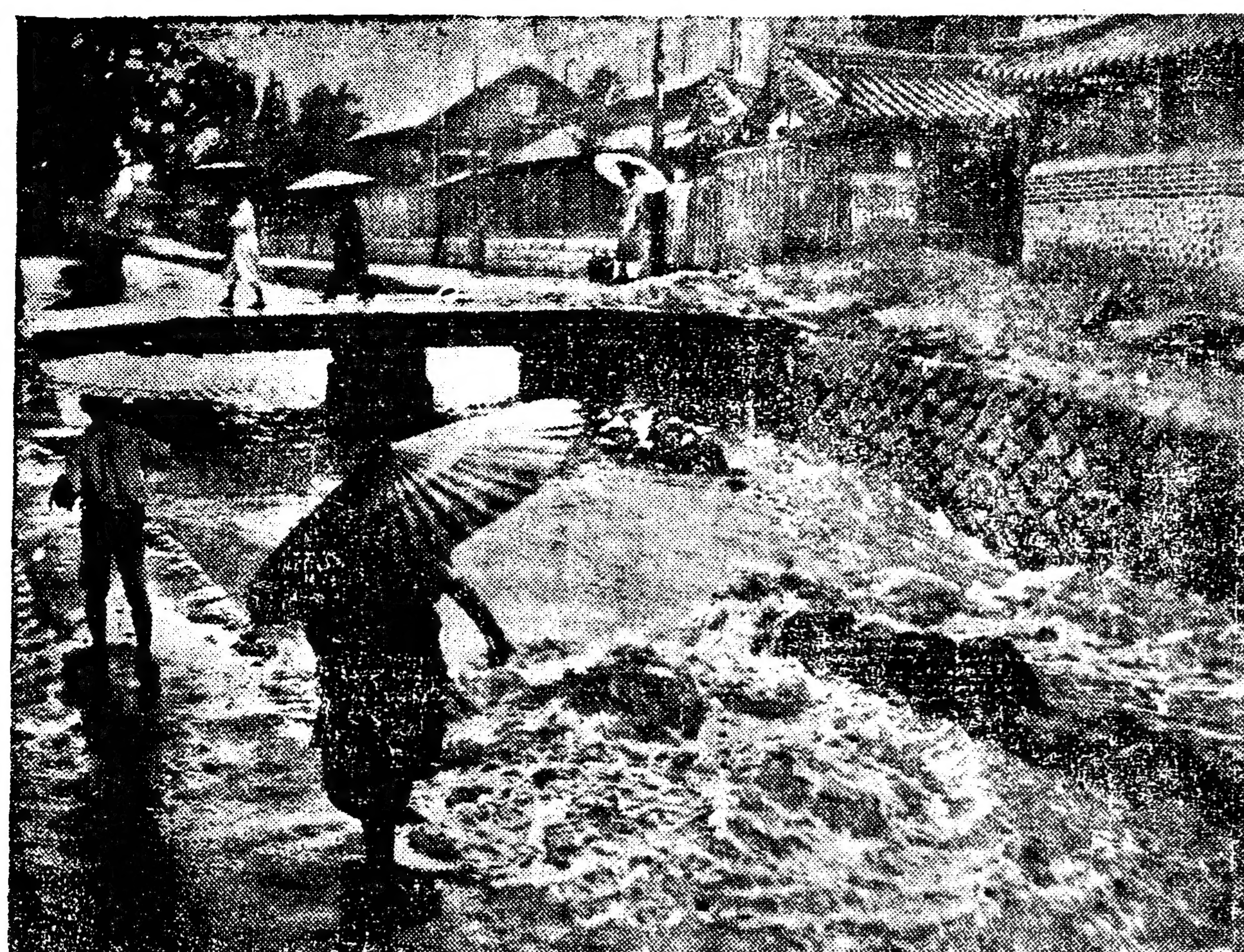
全南道에만도 白畓三萬町步

代用作物을심으도록周旋中 移秧한곳도枯死狀態

【光州】 무심한창천은농긔를당하야 넓지못한 이땅에 고루비를나리지 못하야 곡창(穀倉) 전남의 농형은 말못할 처참한지경에빠저 흉년이라는 락인을결정적으로 찍게 되엿다 도농무당국자의 말에의하면 전남지방에서도 순천(順天)보성(寶城)광양(光陽)등동남부에는 이앙도발서 완료되엿슬뿐더러 그호로도우량이흡족하야 대단히 량호한형편이나 광주 라주(羅州)함평(咸平)등서북일대에는 그동안우량이 극히부족하야 함평가든곳에는반수가량이아직이앙을 못하고잇는중이다 전남도전체로보아 이앙을못한면적이 전수답(水畓)면적이십일만정보의 일할오분에해당한 삼만여정보가백답으로잇게되엿슬뿐더러 이앙은하엿다할지라도 천수답(天水畓)가튼것은 발서구렬(龜裂)상태에 빠지게되는처참한형상이라고한다 그리하야 도당국에서도 극히 우려하야그대책을 세우기에 부심중인데 만일이십일경까지 비가나리지안이하면 홍수긔에 수침의우려가 업는곳에는 『모밀』을 심도록하고 그러치안흔곳에는서종(黍種)이라도하도록 금융조합산업조합은 물론각동리의회와 조합등의긔관과 보통학교아동들까지 동원식하여 적극장려중이라하며 그저도못한곳은 백답으로한대농긔를 그대로 지나치고모맥이나 적당한 시긔에 파종하도록하리라한다 이가티하야 농민은 눈물먹음든신세뿐이다

進明女高普同窓會

부내 창성동(昌成洞)진명녀자고등보통학교(進明女子高普校)동창회는 래이십삼일 오전십시에 그교강당에서 열니는데 금년에는특별히 재미잇는행사가 만흐며회비는 오십전으로 다수참가를기대하고잇다



◇豪雨! 흐린물 넘치는 천변

全員就業한罷業團에 前約不顧、多量解雇?

八日間對戰中昨夜罷業段落 會社側의態度는豹變

【鎭南浦支局電話】 전남포파업사건은마츰내 직공측의 패북(敗北)으로 돌아가고말엇다 즉일천삼백여명 직공이 지구전에들어태도가 강경하고회사측의 가슴이 초조하얏슬때에 회사에서는취업만 하야주면 요구조건을어느정도까지 듯겟다고 실로애원에갓가운 통고까지 잇섯스나직공측의 태도가 강경하야취업에응치아니하매 십구일까지 취업치 아니하면 해고한다고 위협까지 하얏섯는데 그후경찰은 주동자라고 지목되는 인물들을모조리검거하는 일편직공들의집합을 역시모조리 해산식이여서파업단은 지도자와 통제를함께일코마츰내 이십일밤 교대시간부러취업치아니치 못하게되얏다 일방경찰에 검거된 이십여명직공과 지금병중에잇는 직공약삼십명을 합하야 약오십명만을제하고는 일천이백여명이 방금완전히 취업한상태이며 이십일일아츰 교대 시간에도 한층의이상이 업서서 용광로(熔鑛爐)에는불꺼진지 여름만에다시 죽은재(死灰)를 데이고잇서 파업은이제야 한단락을 고하얏다 한편공장측에서는 요전번에무조건취업을 요구할당시에 요구조건을 전부다들어준다든 전약이잇섯스나 이십일일아츰에 본사자가 공장으로 아옥(兒玉)씨는직공인사주임을 방문한즉 씨는직공들의 요구는절대로 들어줄수업스며 무고히결근한 오십여명직공은 해고하겟다고말하야 대량희생을 단행할것을 말하얏다

所謂義城共黨員 覆審서無罪判決

八十餘名을檢擧햇든大事件 檢察當局面目安在

【大邱】 세칭의성공산당(義城共産黨)사건이라는 의성적색독서회(義城赤色讀書會)사건의 오기수(吳麒洙)(二三) 김규복(金圭福)(二二) 오병수(吳炳洙)(二三) 등삼명은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최고오년의 판결을밧고대구복심법원에 불복공소하엿다가 지난십삼일에 일심판결과 가튼구형을밧고 그판결언도만기다렷든바 지난이십일오전 구시반대구복심법원제삼형법정에서 판야(板野)검사 립회와 손치은(孫致殷)안촌(岸村)등변호사출석에 경(鄭)재판장으로부터 판결언도가잇섯는데 재일심판결을 번복하여무죄의판결을하엿다 세인의이목을놀나게하든 이사건이 오년의 증역을 바덧다가 어어하여 무죄로 되엿는가 이제그자세한 내용을 듯건데 소화팔년구월에 의성일대에 검거선풍이 불어 팔십여명의 검거자를내여경북도경찰부 최(崔)경부가의성에출장하여 삼개월간의 취조를맛치고 그중팔명만 송국하엿든바그중 오명은 기소유예로되고오기수등 삼명만 기소되여소화구년 십이월에 전긔와가튼일심판결을 바되왓든것이다 이래수차의 이심공판에서 이사건의취조관계 경관의 증인심문을맛치고 신중한심리를 계속하여왓든바드디여 증역오년이라는엄청난일심의판결을번복하고 증거불충분결사미연방지라는 리유로 무죄의판결을 한것이라한다 一審判決 吳麒洙懲役五年 吳丙洙懲役二年半 金圭福懲役二年半 에무죄가 되엿스니 이사건을취급한 검찰당국의면목은 어데잇는가 근내경북도내 영주(榮州)봉화(奉化)례천(醴泉)안동(安東)경주(慶州)포항(浦項)등지에 연달어적색사건을 내고방금도울산(蔚山)김천(金泉)등지에 수십명의청년을 검거하여도 경찰부최경부가 출장취조중이니 금번이무죄판결은 일반인사에게 큰충동을 줄뿐만이아니라 오년의 증역이무죄로되엿다는것은 조선사상 사건유사이래 처음본일인만치 크게주목되는일이다

咸南은低溫으로 農作에不利

今年에도冷害의念慮

【咸興】 함남도는 수일전부터담천(曇天)과 비가계속되여 긔온이갑작히저하하여 지난십팔일에는 섭씨십륙도이분이라는 저긔온을보이엇다 도농무과의말을들으면 각종농작물의성육피해가 막심하다고하며 특히산지대에는 일개월전부터 안개(霧)가 깁게싸여 사라지지아니하고 또한긔온이극히나즌관계로 전작(田作)은 역시 전연성육이 불완전하다고하는데 알곡류의전긔여하가 극히주목되며 일반의우려가대심하다고한다

咸南僻地의 水害不少

【咸興】 지난십륙일내린호우로인하야 함남벽지대는 교통농작등에상당히혹심한피해를 밧고잇는데 지난십팔일까지 함남도경찰부에도달한보고에의하면 혜산서(惠山)관내에는 청진혜산(淸津惠山)간 이등도로는 산봉、석봉(山峰石峰)삼개소 혜풍(惠豐)선이등도로는 산봉오개소 함수(含水)선삼등도로는 산봉십사개소로 교통이두절되고잇는데 도로복구에 로력중이다 그리고 류벌용언제(流伐用堰堤) 류출일개소 편발(編筏)일개류실、교량파손일개소 가옥침수오호 이며답(畓)이전평전(田)삼천여평이 침수되엿다고한다 그리고장진(長津)서의보고를보면 압록장진(鴨綠長津)량강은 대증수하여 각도선장은 전부도항불능에이르렀고 다시신흥서관내(新興)장진강은륙처로 각도선장은 모조리도항두절이되엿다는데 산지대방은 당분간은 교통이전연 통하지못하리라고한다

精神病든女子 三母女殺傷

北靑郡下의慘變

【咸興】 일가삼모녀를 살상한정신병자의 파란으로생긴참변=북청군덕성면 서흥리(北靑郡德城面西興里)김춘가(金春佳)의 처 최보배(崔寶培)(三○)는 작년 음력칠월경부터 정신에이상이 생겨이래가료하여오든바 금년사월에 이르러서는 거이전쾌에 이르러서 동리사람들도 모다보통사람으로 녁이고 안심하고잇든바이달십삼일부터동연재발하여십륙일경자긔집을 떠나서 동리리춘학(李春學)의집에 이르러 그집마당에잇든 큰돌나무 몽동이를들고베를짜고잇던 리춘학(李春學)의처방표순(方杓順)을 무수란타하여 중상식힌후 다시낫잠을자고잇던장녀 죽절(竹節)(一三)을때려목하생명이 위독한상태에 이르럿고 다시차녀죽순(竹旬)(三)을때려즉살식히엿다고한다

永登浦鍾紡陣容 職工三千名使用

明年夏頃은竣工豫定

종연방적(鐘紡)회사에서 부외영등포(永登浦)에 새로설치할공장은 그명칭을 종방경성공장(鐘紡京城工場)이라 하기로결정하엿는데 이에대해서 동공장장편강면(片岡勉)씨는 다음과가티말한다—

종방이 조선진출을 하게된발단은 총독부의 조선공업화정책과보조바다 관계자들의희망과권장에의한것으로 공장은 지금일 지진제를거행해서 공공사에착수햇든바 긔지는약팔만평방긔(紡機)오만추(錘)에 직긔(織機)일천오백대로 가공품의 월산출고는 이십만필로완성하기까지는 일개년을요할모양으로 준공은 래년이맘때가될것과 함께꼬작업을 개시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일긔공사로 제이긔계획에의한모양이다 그결과는 전긔설비의배나될것이오 제품은우선면혜·죠이는것과무지염(無地染)두가지만내겟고 장래는 인조견 도내일터이다。

전긔와가튼 동양방적(東紡)인천공장보담 긔지에 잇서약삼배, 내용및설비에잇서약이배의해당하고 직공수효도약삼천명을 사용할것이요 동력은이천오백『키로』나 된다한다

運動競技

都市對抗卓球 開城惜敗

對平壤戰에

朝鮮卓球協會主催의 全日本都市對抗卓球 朝鮮區第二次豫選大會는豫定과가티 二十一日午前十一時三十分부터米倉町에서 參加한京城、仁川、開城、平壤의 四都市代表인 十六名選手의入場式을마치고 開城對平壤戰으로부터開幕되여 戰法은西歐先取制에依하야行한바 이날夕刊마감까지의戰績은다음과갓다

◇準決勝戰

【平壤】勝		【開城】
×金甲淳	2……3	文錫瓚○
×金炳鉉	1……3	洪性範○
○黃致玉	3……2	李順佑×
○金甲淳	3……2	文錫瓚×
×金炳鉉	0……3	洪性範○
○黃致玉	3……1	李順佑×
○金甲淳	3……1	文錫瓚×

對留學生蹴球 二對零으로海州勝

【海州】 海州體育會主催와 海州新聞記者團後援의 海州體育會對東京留學生蹴球俱樂部歡迎蹴球戰은 豫定보다 一日延期되여지난十八日午前五時十五分부터 海州高普『그라운드』에서吳龍煥(主)洪在周 李鳳來(線)三氏 審判아래海州軍의先蹴으로 開始된바 海州軍先蹴을 試하고 一點을 너허勢를 보이니 留學生軍悲壯한決意의 빛이 보이며 結終不振하야 後半에도 一點을빼앗겨結局二對零으로 海州軍이 勝捷하얏다(계입七十分間)

平壤留學生籠球 第二日의戰績

【平壤】 平壤O·B籠球團主催의 平壤留學生歡迎籠球戰第二日은二十日午後四時二十分부터 府內光成高普室內運動場에서行한바 崇實은留學生하고 O·B籠球團과의無勝負로 結局四戰三勝一無勝負의榮譽의記錄을남기엿는데 이날의戰績은다음과갓다

留學生33 (15─21 / 21─14) 35崇實

留學生對崇實戰은 同四時二十分부터 金永吉、方元煥兩氏審判下에開戰한바 結局三十五對三十三으로 惜敗하다(계입三十分)

留學生26 (11─15 / 13─13) 26OB

留學生對OB戰은 同六時十一分부터金永吉 金寬錫兩氏審判下에 開戰한바 結局二十六對二十六으로 無勝負되다(계입三十分)

東西陸上對抗初日 柳君은中途棄權

【電通名古屋電話】 日本陸上競技聯盟主催創立十周年記念第八回東西對抗陸上競技大會一日은二十日午後二時부터 名古屋市鶴舞公園市營運動場에서 東軍主將吉岡隆德氏 以下三十四名 西軍主將 塚本彌之助氏 以下 三十四名의 一流選手가 參加한가온데 開催된바 第一日의得點은東軍五八、五點、西軍三五、五點으로 東軍斷然리ー드하엿다 그리고 朝鮮으로부터 出場한柳長春君은 右脚部의 不仁함을무릅쓰고 五千米에出戰하엿다가中途에棄權하고 孫基禎(養正)君은 今二十一日午後三時에 行하는마라손에 出場케되엿다 그리고 田選手는 砲丸投에三米九○을뛰어 第二位를占하엿다

普專庭球部 海州서快勝

【海州】 海州體育會主催와海州新聞記者團後援의 海州軍對普專庭球部歡迎對抗戰은 지난十九日午後四時三十分부터 海州地方法院코ー트에서 海州體育會 鄭永善氏審判아래開始한바 左記戰績과如히 海州軍이惜敗하엿다 對抗戰이끗나자 普專庭球團一行 十二名은 同日午後七時頃大正館에서 海州體育會主催의 歡迎會에參席하엿다가海州서一泊한後 二十日午前八時에 海州를出發하야 載寧으로向하엿다

載寧서도大勝

【載寧】 載寧庭球同好會主催와載寧老童團後援으로 普成專門庭球軍을招請하야 지난二十日下午二時부터 載寧明新普通學校코ー트에서 全載寧軍과의 庭球試合을行하엿는바 當日은雨天임에도 不拘하고 競技를進行하엿스며六對零으로 普專軍이 快勝하엿는데 戰績은如左하다

【普專】		【載寧】
洪性夾 李大	4─0	三大谷好
金聖德 李世貞	4─2	金光明
金台日 張在東	4─1	金錫明
徐烈 金谷	4─1	板垣 王榮
金中申	4─1	劉彼來
李元	4─3	金基根 朴永

米杯인러ー존 米國單式一勝

【電通윔불돈二十日發】 데비스컵인러ー존 米國對濠洲의決勝戰第一日單式試合은 다음의스코어로 米國一勝하엿다

(米)밧지 6 6 11 7 …… 1 8 9 5 켄엘(濠)

★明日의運動★

◆野球=大朝主催中等野球朝鮮豫選第一日、咸興商業對 京城工業(午前九時)京師對 元山中學(正午)龍中對仁川商業 (午後三時)

櫻井町火災 四戶全半燒

損害萬餘圓

이십일 오후열한시삼십분경에시내 앵정정(櫻井町)이정목 구십오번지 하야(河野)가구제작공장에서발화하야우중임에도불구하고 화세맹렬하야 린가로 화연이빼처가서 동번지 마생(麻生)의집과 공가일호를 전소하고 단우(丹羽)의 집을 반소 하엿는데 급거출동한 소방대의 극력활동의결과 이십일일 오전령시십분경에야겨우진화되엿다손해는 약일만원이라하며 발화원인은방금도미상하야 소관본정서(本町署)에서목하엄중조사중이다

天氣豫報

雨後曇

山東半島에잇든低氣壓은東進하야 今朝는 黃海西部에잇서서 半島中部를 通過코자한다 又颱風은 石垣島의 東에잇서 徐徐히北進하며잇고 高氣壓은 日本東海上에서 日本海로퍼저잇다 朝鮮은 雨天이며 西岸은 東風이 조금强하며 滿洲와 西朝鮮及日本은 흐리다 今夕은 東風이불고 비가올러이며 明日은 西風이불고 흐리리라

昨日最高 二六、二 最低 一九、六 今日正午 一八、七

重症用 毒掃丸

梅毒 에는 藥學上의 理論과 臨床上의實驗에 依하야되 沃素療法으로=

重症用毒掃丸은沃素劑를根幹으로한最新製劑요。初期梅毒、慢性梅毒、潛伏梅毒、先天梅毒、冷毒、小兒胎毒、梅毒性皮膚病、同神經痛、同ㄹ마치스、橫痃、痔疾、惡性여드름、動脈硬化、甲狀腺腫、胃腸病

藥價 一二週用毒掃丸二圓、三週五圓、十圓、廿圓、卅圓 二週用五十錢、一圓、小兒用卅錢、五十錢、一圓

東京神田花房町 株式會社山崎帝國堂 (振替東京一四六七番)

速하히낫는 淋疾藥

特製 루ー베리

골음、압흠 곳곳침

藥價 二圓、三圓、五圓、十圓 大阪市南久太郞町堺筋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番 全國到處藥店에잇소

第五六期營業報告 貸借對照表

資産	金額	負債	金額
未拂込資本金	[illegible]	資本金	[illegible]
土地	[illegible]	法定積立金	[illegible]
建物	[illegible]	別途積立金	[illegible]
什器	[illegible]	前期繰越金	[illegible]
有價證券	[illegible]	當期純益金	[illegible]
諸貸付金	[illegible]	借入金	[illegible]
債權	[illegible]	合計	[illegible]
流入購入物	[illegible]		
假拂金	[illegible]		
金銀	[illegible]		
合計	[illegible]		

昭和十年七月 日 壽藏株式會社

蔡·姜 二大歌手 컬럼비아로된 히트盤 再現!!

流行歌 아득한千里길 蔡奎燁

故鄕을차저가니 姜弘植

레코ー드番號 四○六二

콜럼비아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產婆 金孝允 入院隨意診察 自午前九時至午後八時 安東네거리·電車停留場前(電光二一三二)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入院室完備) 京城鍾路三丁目十六 電話光化門六八五番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三○ 金銀白金高價買入 金寶堂 吳健燮 電話本局七六七番

딱딱소리가무엇인가!!

변전에 『지리산』 갓다가 도라오던 길에 자동차 기계 속에서 의외에 딱딱소리가 들니기에 처음에는 무슨 까닭인지를 몰낫스나 그런 소리가 나면서는 모든것을 집에까지 갓는 엇잴줄로 자각하엿다 이런것은잘못보앗다 그러하야 『피스톤』속에 기록이 녀기하지못한것을……

大阪着尺問屋案內 夏物洋服品揃 羅紗製品卸問屋 限商店生地見本相場表進呈 大阪市谷町一 石尾仁本店

百圓資本 (具店營業) 內外文房具問屋 イチヤ商店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二丁目 電話船場四七七七番 振替大阪三一五五三番

鋸製造卸 大工道具 卸値段表進呈 武村製作所 大阪市東區神崎町四一 電話東八一一六番 振替大阪七六四七○番 創業明治二十八年

洋服界의合理化 品質仕立은責任保證付

◆見本送呈 十七圓부터 二十五圓까지 別誂注文合 服脊廣三揃 十三圓부터 二十圓까지 夏服上下 別誂注文 既製品 上衣七圓より ズボン四圓五十錢より

大阪市谷町一丁目十四番地 正司憲商店 洋服通信販賣部

院 療養門專門 卍 院長 醫學博士 金秉瑞 電話一七○六 振替京一七○九番

雨衣 수장옷 朝鮮防水布製造所 電話本局二○二一番 振替京城五三七七八番

朝鮮劇場 七月二十日부터 爆彈죤스 ... 愛の防風林 ... 제니에一生

桃花劇場 死物狂 어두운江邊 봄의멜로듸

優美館 燕お瀧

薯童謠와薯童話

湖岩

[illegible] 童謠童話는 [illegible] 어린이와 [illegible] 안되겟다

이노래의 이름은 薯童謠라고 보통다 워 薯童謠라고 부르는가 薯童이 이노래를지은때문에 薯童謠라고 부른다 그러면 薯童은 어떠한가 百濟나라 [illegible] 외아들로 놀기조화하고 노래잘하는 美少年이다 그자 어느때를 집어서 부르게된 來歷으로 말하면 아주 아긔자긔하게 滋味잇는이야기거리다 그가 처음에 이웃나라新羅의 公主善花가 [illegible] 듯고서 그옥이 [illegible] 戀慕하고

新羅 서울에 드러가려할때 메(薯)를 가저 한 [illegible] 하더미이고 그네를 시켜 이童謠를 부르게하니 얼마아니해서 온서울아희들사이에 이노래가 떠지게되어 畢竟 大闕안에까지 들리어 남겻게서 사랑하는 따님善花를 宮中으로부터 내쪼찻다 이때 薯童은 슬그머니 近侍의한사람이 되어 善花의 눈에드도록 아주 슬기잇게 굴엇슴으로 善花의 사랑을 바덧다 薯童은 몸을 다서 善花를 데리고봄바람에 날는 나븨 와가티 두사람이 압서거니 뒤서거니하야

百濟 서울로 돌아오도리하엿섯다 薯童과善花사이에 國際的戀愛가成立되엿스나 이얼마나 깃븐일이겟는가 그러나 이두사람은 戀愛에만 成功한것이 아니라 山메미가든 黃金의노다지를 發見하야 富貴에 덧富貴를 하게되엇다 善花가 百濟서울에오자 일즉 그어마님으로부터 주신純金한말(一斗)을 자랑삼아 내노흐면서 팔아쓰자고하매 薯童은 껄껄우스며 「이것이 무슨물건인가」 善花 「이것은 黃金이라오 이寶物이잇스면 마음대로잘살수잇지요」

薯童 「되어 [illegible] 처나상아 메(薯)를 캐내그곳에는 이따위누른 黃金이 진흙과 가티 드러차인 것을 보앗지요」이 말을듯드니 善花는눈이 휘둥하여 지며 감으되 그 「天下寶物을 發見하엿구려 그러면 그곳에가 봅시다 이黃金한말은 보낼것업스니 어마님에게도로 돌려보내십시다」하고 薯童을따라 黃金의 노다지가잇는곳으로 가서 땅을 파매 땅이 온통빗나는 黃金빗이엿섯다 그네들이 自己集 黃金을 케여다가잔뜩

泰山 가티 더미노코 黃金을 마음대로 몰쓰듯하엿다 하로아침에 [illegible]에다 巨富가지된 薯童은 [illegible] 善花셔이니 天下사람들의 놀어워하는 [illegible]的이 되엿도 當然한일이다 그런데 여기 奇異한일은 善花가 가지고 왓든 黃金한말을 그어마님께로 올려보내새 [illegible] 로 실어보내면 어려밤이 걸 [illegible]며 잘못하다가는 寶物이니만큼 中間에 무슨 變故가생길런지 모르므로 [illegible] 行變로서 空中飛行을 하게지만 이떠는 이런것을

夢想 도못하는터니까 생각다못해서 鬼神의힘을 빌어서하루밤사이에 이黃金한말을 新羅宮中에까지 실어다주엇다 新羅王과 그王后도 薯童의 鬼神부리는것을 보고 크게奇異히 녀여 「내사위여」하고 이로부터 [illegible] 를 歆羨하엿다 이로부터 天下人心이 薯童에게로 돌아가는마치내 百濟王이 되고 善花는 [illegible] 王后가 되엿다 이미 말하니와 鬼神에다 巨富에다 지금와서도 王族까지 쓰게되니 이일마나 榮華스러운일이나 世上에서 부러워하는것은 다해보앗다

特輯

동화 숭내쟁이까치

宋昌一

엇던동리 동구압헤 크다란느리나무하나가서잇섯습니다 멀니서바라보면 맛치 크다란우산을펼처논것갓흔 보기조흔모양이엇습니다

소낙비오는날이면 비피하기조코 해나려쪼이는날이면 그늘에 쉬여가기 조케되엿습니다

그러나 이동리에사는사람들은 누구나 이ㅡ나무아래에 가기는커녕 그압흘지나가기쫓차도 끄려하엿습니다

그리유는 이나무가지에는 언제나한마리의 이상한까치 가안저서 지나는사람들의숭내를내고 잇는데 새벽에 그놈의 놀림을 밧으면 그날하로는 재수가업서서 뭘일도안되고만다는 전설이 엇기때문입니다

작난꾼아이들도 까치와놀고도 십허스나 무슨큰불행이라도 닥처올가바서 하나도가는아이가업섯습니다

그런데다 밤만되면 동리사람들은느리나무아래를 왓다갓다하는독개비불을 보게된다는데이것도까치와 작란이라고 밋어왓습니다

하여튼 이ㅡ나무는 이상한이야기를 만히가지고 잇게되엿습니다

하로는 장터가파하여 마을사람들이 느리나무압흘지나 동리로도라왓습니다

[illegible] 장터로갈때는 한번도 지나보지 안흔길이지만 저녁때 늦게 장이파하면 갓가운길을것기위하여 느리나무아래를 지나 [illegible]

도라온 동리사람들은 저녁을 먹으면서다들 느리나무가지에안저 능청맛게도 숭내를피는 까치이야기를하고들 잇섯습니다

봉구아버지도 저녁을밧아놋코 까치의게 놀님밧든이야기를 하고는나무압흘지나 올때한듯이멧번이나 『퉤!』하고 침을밧탓습니다

『내 평생에 그압흘 지나단기지 안으려 햇드니 오늘은넘어도 늣겟기에 갓가운길로 오느라고햇드니 그ㅡ재수업는까치를 또보앗구나!』

잠잣고듯고잇든 봉구는 큰수나생긴듯이

『아버지! 그놈의 까치를 업새버릴수는업슬가요? 그ㅡ재수업는놈을!』하고 제법선난얼굴로 가지엿습니다 그ㅡ놀은짐인듯주먹은 당장에 다라가서 까치의목아지라도 비틀어죽일듯하엿습니다

『야! 봉구야 철업는소리마라! 그까치가 그ㅡ느티나무에서사는지가 언제부터인지 모를만치 오래엿단다 누구나 그런생각은다가지고 잇슬는지모른다 그러나 한사람도 그놈의게 손을대지못하는 리유가 잇단다 너도아다시피 그놈이 이동리에 재앙을주기도 하고 복을주기도한다는 전설이잇기 때문이 안이냐? 아에 그런말도 먹지마러라』

그러나 봉구의생각에는 미신에사로잡힌아버지가도로혀 어리석어뵈엿습니다

까치를 죽인다고 아모런관계가업슬것이고 잘살고 못사는것은 단지힘써일해나가는데달녓다고 생각하엿습니다

그날밤봉구는 한잠도자지못하고이리저리궁리를하여보앗습니다

엇더케하면 까치를깜족갓치속여 업새버릴가하는문제엿습니다

한가지묘한계책을 생각해낸봉구는 날이밝기를기다려가지고집안사람들도모르게 까치가살고잇는 느리나무아래로갓습니다

어른들도 가기를실혀하는 나무아래로 대담하게갓습니다

능청마즌 까치는 벌서멀리서부터오는 봉구를볼때 요놈또놀려먹자는듯이 방정맛게도 나무가지에 쭉그리고안저서 눈알을 말동거리고잇섯습니다

봉구도 벌서눈치를알어채이고 나무아래에가자마자 만흔말을건니엿습니다。

『에구더워! 좀쉬여가야하겟군!』

하고 말을하자나무우의 까치도 똑가티

『에구더워! 좀쉬어가야겟군!』

하고 숭내를내엿습니다 봉구는 또다시

『나무그늘에서 한잠자볼가!』

하며 드러눕는 모양을하엿더니 까치도

『나무그늘에서 한잠자볼가!』

하면서 꼭가튼숭내를내엿습니다

봉구는 속으로 『그놈잠숭내도 잘한다 그래두 내가오늘은 나한테 쫏겨가고죽으리라』 생각하니 한업시깃벗습니다。

엇지생각하면 한참까치와 주거니밧거니 놀고도십헛스나 그러케자미잇게 놀때가아닌줄알고 봉구는 기지개를 한번 켠후에 벌덕이러나면서

『나무그늘도 시원찬쿤 강에가서 목욕이라도해야지!』하고 혼자중얼거렷더니 까치도똑맛찬가지로 나무가지에서 날개를펄럭펄럭 언덕아래강으로따라나려왓습니다

『강물에는 자미가업서 [illegible]라야 조하』하고 봉구 [illegible] 욱씻조며서 까치의눈치 [illegible] 앗드니 까치도 발이겨 [illegible] 얏흔물에드려서서 발 [illegible]

『강물에는 자미가업서 [illegible]라야조하』하고 숭내를내엿습니다

봉구는 점점계교대로 되여가는것을생각할때 『성공이다!』하고 손바닥이라도치고십헛스나

『물도맑다얼골이나씻고갈가!』

하고 새수를하든니 까치도

『물도맑다얼골이나씻고갈가!』

하면서 얼골을씻즈려하나 손이업서서 발로얼굴까지갓다대고에를파딱쓰고잇섯습니다

까치가 얼골을씻기에 정신을 못차리고잇을때 봉구는 강가운데로 풍덩뛰여들면서

『왕문바에는 목욕이나하고가지! 에!조타 에!조타!』하고 떠들엇습니다

까치는 얼김에 멋도모르고숭내내는강에 깁흔물로풍덩뛰여들면서

『왕문바에는 목욕이나하고가지! 에!조타 에!조타!』

하면서 제법 봉구가 두발로 가지고 철석철석 물장구를 펑치듯 [illegible] 아하엿습니다

한참만에봉구는하날을처다보고 『참! 시원도하다 해가낫이되엿군! 집으로가정심이나먹자』하면서 척척히 언덕을향하야 거러나오고잇섯습니다

그때 까치도 똑가튼말로 숭내를내면서 활짝나오려하엿스나 큰일낫습니다 날개가그만물에저저서 움직일수가업게되엿슴니다 날어보랴고 애를 썻스나 애를써스록점점물속으로 까라안젓습니다

물속에 무어번빠젓다나나 기운이빠저더움족일수도업섯습니다 그마럽내나려오는 세찬물결에 휩쓸리어정처업시 멀니멀니 떠나려가고잇섯습니다

……(끗)……

동화 우물과시내물

金圭銀

마을 한판에 잇눈 우물이축동바게서 졸졸 흘러가는 시내물을 향하여

『자네들은 어디로 그러케 밤낫 달려가는가 다리도 아프지 안흔가 암만 보아도 싱거운것만 가레 그려…』

햇습니다

시내물은

『그럼 낫네! 큰일낫세!…지금바다물이 이세상 소금이란 소금은 죄다집어 먹고 짜서 죽겟다고 [illegible] 하며 [illegible] 잇던 물은 좋은 들를 [illegible] 십다고 어우성을 처서 우리가 달려가네!

맘 다리가 아프지 안흔가고? 맘게! 바다물은 우리물의 겨레가 아닌가 우리겨레가 어려운일이 잇을때에 우리어찌 가만이 잇겟는가 그래서 지금이세상 물이란 물은 죄다바다로구원하러간다네!

놈은 산꼭대기에 잇던 물은 큰 바위에 부딋치며 험한 벼랑에 굴며 내려오고, 깁흔 골을 새며 꼬부라진 꼴작이를 돌아나오고, 들에 잇던 물은 농부들의 원망과 욕설이 실허서 논과 밧을 에돌아 가노라니 그 고생이 어떠하겟는가。

그리고 한시라도 얼른 가서 우리 겨레를 구하려고 밤에 쉬지도 안코 달려가네!

바다물은 무슨 생각으로 그랫는지 이세상 소곰은 죄다 집어먹어서 륙지에는 소곰이라고 한알도 업게 되고, 속이 너무 짜서 [illegible] 발광을 하면 사람들은 [illegible] 하고 그런때면 배가 깨저서 사람도 만히 죽네!。

그러니 우리는 어서 가서 그 바다물을다 구원해 주어야겟네! 조곰이라도 쉬어서는 아니 되겟네!』

하고 돌돌소리치며 흘러갓습니다。

그말을 잠자코 듯고잇던 우물은,

『아, 그런가? 정녕 그럿단말인가?

우리 겨레가 그와 가리 고생한다면 우리도 어서 달려가야지! 우리라고 어찌마을 한가운데 가만이 잇겟는가!』

하고 한참 귀를 [illegible] 넘어나올듯이 [illegible] 습니다。

그러니 시내물은 『여보게! 자네들은 가만이마울가운데 잇서야 되네! 자네들이 마을을 떠나면 마을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업서 고생할테니 우리는 얼른 달려가서 우리겨레를 구원해주고, 자네들을랑은 사람들을 위해주어야 되네!』

햇습니다。

우물은,

『옳지! 우리가 마을을 떠나면 마을사람들이 정말 큰일이겟구나! 시내물! 그러면 자네들만 어서 가서 바다물을 구원하게。 우리는 도루 제자리에 안겟네!』

하고 꾸북 꾸북하며 다시귀물 안으로 내려갓습니다。

……(끗)……

童話 욕심만흔임금님

朴魯一

옛날엇던한나라에 욕심이 만흔 임금님 한분이게섯읍니다 엇지도 금돈을질기시는지 눈이부시게 번쩍이는 금돈을 한팡이나 갓득싸아두시고도 그래도 더욕심을 내섯습니다

『신령님 금돈을 좀더만히주십시요』하고 밤이나낫이나 빌으섯드니 신령님은

『옹그런가 이제부터 만지기만하면 모다금돈이 되게하야줄터이야 그래도조켓는가』

하고 말슴하섯습니다

『네-네- 그래도좃읍니다 신령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닭고 넓은 정가안은 별안간 금돈으로갓득찻습니다 결상에걸어안지시라고 결상을끄러잡아다리시낫가 이것이원일일까요 결상은 별안간금돈으로 변해젓습니다 맛친 정심때가되여서 가저온 진지와국과 맛나는반찬을 잡수시라할때 진지그릇을 끄러잡아다리시낫가 웬일일까요 진지는금돈으로변 해젓습니다 숫까락을잡으시낫가 숫까락도 금돈이되엿습니다

『이일을 엇저면조흔가』

하서고 엇지할줄을모르시엿습니다

그때맛친 공주님이 콩콩 뛰여오섯습니다 단지한분이신 사랑하시는 공주님이 거레오섯슴으로 무심하시고 공주님을 끄러안으시엿습니다 공주님은 별안간 금돈이되섯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대단히놀나시며 울으시면서 말슴하섯습니다

『금돈은 고만 실습니다 비옵니다 신령님 이어린 공주를 살려줍시요 전과가티』

임금님이 우시면서 빌으시는것이 딱하셔서 신령님은 금돈이되엿든 공주님을전과가티 다시살려주섯습니다 (끗)

＝바다에서잡은 이―비＝

바위돌인줄아십니까? 아니애요 아니애요 아주 무서운 이―비올시다 복생선이란 고기의 종류인데 이러케 큰놈은 잡히기를 처음이랍니다

祝朝鮮日報社新築落成記念

人工榮養品의

最高理想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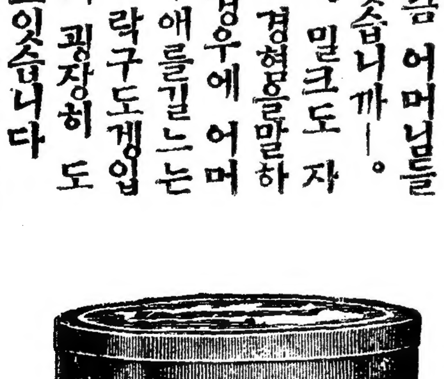
ラクトーゲン

락도ー겐

광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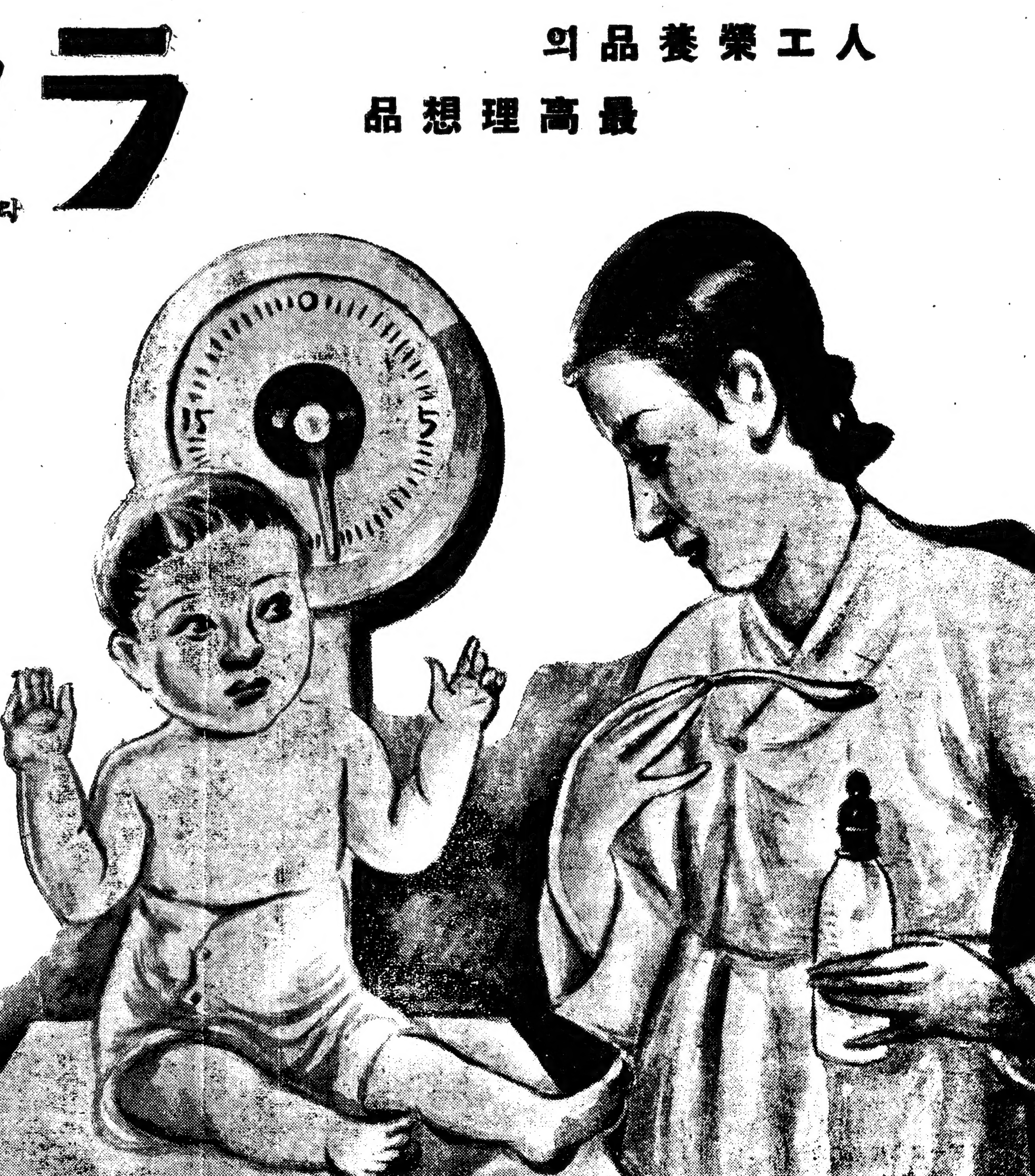
育兒의實績

어머님젖이업서서 꼬치꼬치 말느고 보챈애들처럼 안타까운것은 세상에 또 업슬것입니다。 그만큼 어머님들은 얼마나 고생을하시겟습니까ー。 밀크도 자우유로는 충분치못하다。 경험을말하미업섯다하고 여러가지 경우에 어머님젖 대신 가장 완전히 애를길느는 목적을 달하게하는것은 락구도겡입니다 이것으로 오날까지 굉장히 도만흔 육아의성적을 내고잇습니다 엇던분은 어머님젖이 한방울도업서도 완전한 애를길넛스며 또 엇던애는 모유와병용하야 놀날만큼 발육을식엿다하니 애들의 행복을 위하야 애용하심을권합니다



『育兒의十二個月』

申込하면無代進呈



發賣元

乾卵食料品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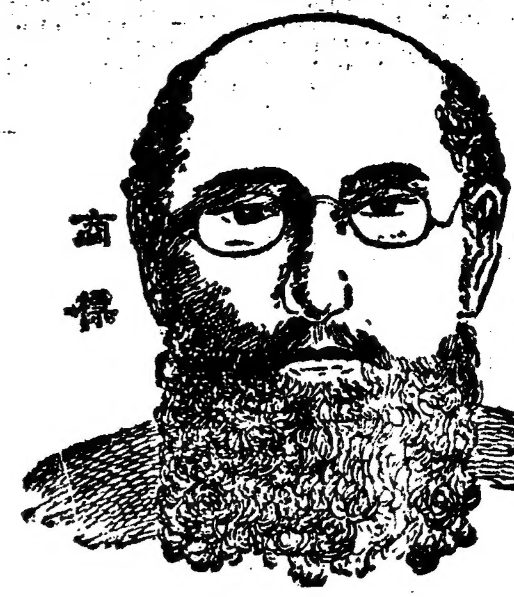
大阪市東區伏見町二丁目

眼科專門大醫

醫學博士 河本重次郎氏
醫學博士 小玉龍藏氏
醫學博士 吉田義治氏
醫學博士 山中崔之氏
醫學博士 豊田正達氏
推奬

이제서大學目藥이世界에第一인目藥일까?

그까닭을말슴하야드리지요



第一 大學目藥原料中에專賣特許인『올비오래긴』이配合되야잇슴니다。이것은世界의어느目藥으로도追隨치못할것입니다。

第二 그런結果大學目藥은모든眼疾에神効잇는治病作用과눈을깨끗이하고아름답게하는美眼作用과눈에有害한紫外光線을防止하는紫外光線防止作用等三作用을一時에나타내는것입니다。한가지藥으로三作用을兼備하야、眼科藥으로서理想을實現한目藥은、모든目藥中에서도、우리大學目藥이잇슬뿐입니다。

第三 그리고、大學目藥은、압흐거나、쓰리지안코、氣分조케有効한것이자랑할만한特長입니다。『氣分조코愉快하게眼疾은治療한다』는것이他藥의追隨不能하는大學目藥의特長인同時에、藥質은아모리오래두어도變質되거나腐敗치안어서、어느때나安心하고 使用할수잇는것이、大學目藥의世界的으로 信用을엇는理由입니다。

第四 다시、大學目藥에는一瓶마다、大學洗眼藥이라는 눈을씻는藥이添付해잇슴니다。 眼疾을速治하랴면、눈을씻고 目藥을늣는것이 조흔것은、누구나 다아는바인대 目藥에洗眼藥까지添付된 親切한目藥은大學目藥外에는 업슴니다。 그뿐아니라、大學洗眼藥은 世界一인산데-뿌衛生包裝을하야가장清潔히包裝되야잇슴으로、누구나大學目藥의周到한데는賞歎치안는이가업슴니다。

第五 大學目藥에는、十歲以下어린이를爲하야特製한小兒用大學目藥이잇슴니다、學理와經驗에依하야、어린이눈에맛도록製劑한 小兒用大學目藥이 世上父母된이들에게絕大한信用을밧는것도當然입니다。

第六 最後로、點眼容器와人造龞甲케-스에對하야한마듸말슴하겟슴니다大學目藥의容器는新案特許의自働點眼容器입니다。이容器는、그대로自働式의點眼器인便利한것으로、上部의고무를손으로누르면一滴식마음대로目藥이떠러짐으로、누구나自由로使用되고、또一滴도허실되지안음으로第一經濟的이요衛生的입니다。 이點眼容器는、너머지거나、거꾸로드러도目藥이쏘다질念慮가업슴으로、携帶하기에便利한데다더 一層携帶하기便利하도록近代的美裝을다하야、發明한것이、人造龞甲케-스입니다。

人造龞甲케-스는、조곰도흠이지안는、美術工藝의粹을다한優美高尙하고便利한케-스로서、藥의케-스로는勿論、다른케-스로서서도아직다시업는훌융한것이라고評判이조흡니다願컨대、여러분도每日아침起寢하시거든잇지마시고、大學目藥을點眼하십시요。그리고外出하실때에도、반드시포-케트에넛코단이시다가、생각나시는대로點眼하십시요。**여러분눈은어느때나아름답고永久하게健康하실것입니다。**

朝起後에 大學目藥을點眼하면其爽快한心神

눈은더욱健康케되고ㅣ眼疾은곳治療됨ㅣ大學目藥은片時不離할나의寶貝입니다。

大學目藥은 効力第一로 世界에 有所聞한 目藥의 大王이요 그効能의優秀함은、有名한眼科專門의五大醫學博士가 一齊히推奬한것만보와도分明한데다가、世上사람들이『第一조흔目藥이다』라고 爭先愛用하야、**大學目藥**이 世界目藥中에서 第一信用이잇고 第一잘팔리는것으로 보아 알수잇슴니다。

이러케 훌륭한目藥이 日本에서 製造發賣되는것은我國醫學界의世界的名譽라고하겟슴니다。

適應症

○血目 ○雪目 ○눈임안질 ○쑤시는눈
○疲勞眼 ○打目 ○爛目 ○澁目
○다래기 ○상한눈 ○淚眼 ○흐린눈
○麥粒腫 ○삼눈 ○도라홈 ○光線眼炎
○結膜炎 ○진안질

人造龞甲케-스付

一瓶入	三十錢
二瓶入(케-스는一個)	五十錢
補充用(同) 特大瓶付	一圓

케-스업시

試用瓶	十錢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全國各地藥房에서販賣함

大阪東區北濱二丁目
製造本舖 **參天堂株式會社**

士兵團大擧襲來 十餘同胞를拉去
十四道溝一帶에士兵行悖莫甚
移住同胞는避難準備

【惠山】 십사도구(十四道溝)일대에 잠거하면서 출몰횡행하던 마적단 이백여명은 의연동지에 잠재하고잇는중 이미팔십여명은 십구일 아츰 십오륙도구(十五、六道溝)동포촌에서 인질십여명을 랍거하고다시 가옥다수를 강탈하여동구대청정자(大靑頂子)방면에 돌아갓스며 십삼도구(十三道溝)삼흥리(三興里)일대 이주조선인에게 대하여 륙차금 중세공을 협박하든점산호(占山好)일파는 또다시신구입납 아편(阿片)식관과기타금품 다수를제공하라 불응하면전부 총살하겟다는 협박장을보내엿다는바 동지일대의 동포는이협박장을받고 극도의 공포에싸여 갑작이동요를일으키고 외출하여농사도 하지못하고 피난준비를 하고잇다 고한다

(續報)

全南赤色農組事件 十名에執猶言渡
十九日光州法院에서

【光州】 세칭전남 적색농조합(全南赤色勞農組合)사건의 피고 박영진(朴永鎭)등십명에대한공판은지난십일에광주 지방법원제일호법정에서 안전(安田)재판장주심과 홍(洪) 평곡(坪谷)량판사의배석과송전(松前)사상검사의립회하에심리를행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하엿거니와 금십구일동법원에서 동피고등에대한 언도가잇섯는데 안전(安田)재판장은피고십명에대하야 전부오년간집행유예판결을내렷다 그리하야 피고등은즉석에서공소권을포기하엿슨데당입송전(松前)검사가 공소권을포기하면열명의피고들은 소화륙년시월피검이래미결에서 신음한지삼년만에 일제히출옥케될터이다 그리고 피고들의씨명과구형언도된형기는 다음과갓다

氏名	求刑	言渡	
朴永鎭	三年	二年	五年間執猶
朴炯來	二年半	同	同
鄭學奎	二年	二年	同
金話奉	同	同	同
金周權	同	同	同
朴鳳斗	一年半	一年半	同
金甲坤	同	同	同
金希坤	同	同	同
朴鳴斗	同	同	同
朴基禎	同	同	同

平壤府外路上에 八人組强盜出現
大同署五名은逮捕

【平壤】 백주에 과물상을 습격한대담무쌍한 팔인조강도단ーー 평양부 서성리(西城里)백일번지 과물행상리성삼(李成三)(二十)은십구일오전열한시경 대동군룡산면 당상리(大同郡龍山面堂上里)에서 과물을사서실시고 평양으로드러오든도중 동리 백선행교(白善行橋)부근에서 팔인조폭한에게습격을당하여 모든매를맛고 겨우정신을차리고보니 수중에잇든현금 일원삼십전이 업서젓슴에 강도단인줄알고 곳 소관대동서에신고하여 동서에서는 김(金)사법주임이하 형사대가 현장에급행하야 비상선을느리고 철야부근일대의 이름잇는 부랑패를 일제 검거취조한결과 일단놈오명을 체포하엿는데 그들은 강도목적이안이고 쌈홈을한것으로돈은 전혀모른다고 부인하나 년년히 이때가되면 평양을중심으로 각지에서 과물을 가지고드러오는사람을 습격하여 과실혹은 금전을강탈하는 사건이빈발하든중 이번이사건도 단순한싸홈뿐만이안이라 금품을강탈할계획으로 한것이안인가하야 엄중취조하는중이라한다

大膽한窃盜犯人 大同署에被逮
被害總額이萬餘圓

【平壤】 대동서(大同署)에서는이십일오전네시경부내기림리(箕林里)에서거동이수상한 청년을발견하고 본서에인치취조한결과 의외에거적(巨賊)임을 알게되엿다는데 그는부내신리(新里)이백일번지오홍근(吳洪根)(二三)으로 부내선교리(船橋里)합전회사(合電)사택송정공(松井公)씨집에 침입하야다이야반지(가이백원)『뿌라치나』팔뚝시계(시가오백원)외 양복수점을 절취한것을필두로 부내각처로단이면서 귀금속점문으로 절도한 것이십수건(가격만여원)을 범행한사실을자백하엿다한다

人氣를集中하는 近畿蹴球大會
本報支局後援

【廣州】 광주읍내에잇는 경안수양청년회(京安修養靑年會)주최와 본보광주지국후원의 제칠회근기축구대회(近畿蹴球大會)는 오는이십칠일에 개최키로 되엿다는바 인긔는 날로고조되어간다고하며 규정은다음과갓다

一、時日 七月二十七日午前九時

二十一日(日曜)

◇午後○時五○分 滿洲로부터 音樂(哈爾賓으로부터)
◇同一時二○分 俗曲 一、雨滴 二、羽調도드라 三、青春歌 四、山念佛 五、방아타령 六、아리랑 奚琴 池龍九 洋琴 崔壽成 細笛 高載德
◇同六時三○分 兒童劇 老人과 그딸 全一景 新興童人會(配役) 어머니…金信福 玉禮(그의딸)…鄭慶南 惠順(玉禮동무)…林敏淑 信淑(玉禮동무)…張慶順 洞里老人…文烈 容補(老人의아들)…韓和子 指揮 鄭寅燮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話 申仁植
◇同八時 歌曲 一、羽調初數大葉 二、羽樂 三、還界樂 四、界樂 五、編 金春姬 金蘭珠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字
◇同八時二五分 農村振興(입레)放送(釜山) 農村振興懸賞募集當選歌(京城으로부터) 一、(一等當選)…作詞…洪蘭坡作曲 二、(二等當選)…作詞…林湖作詞…李冕相作曲 三、(三等當選)…車龍運作詞…同 權永傑 絹絲子 伴奏、DK管絃團
◇同八時三五分 講演=釜山公會堂으로부터=慶尙南道産業部長 朱榮煥 講演=同=昌寧郡高岩面長 盧泳奐 우리部落의更生 (一)移秧歌(二)夕陽歌(並唱)…(東萊郡)尹順心 裴鎭植 (三)農夫歌…崔翠香 申翠香

二十二日(月曜)

◇午後○時五分 懸心歌外 一、懸心歌 二、엄금 三、孔明歌 四、양산打令 五、뒤산打令
◇同二時 婦人講座 鄭錫紅
◇同六時三○分 童謠合唱과獨唱 一、齊唱 우리동산 二、獨唱 시골밤 三、齊唱 어린동무 四、同 목동의노래 五、獨唱 여름비 六、齊唱 자장가 七、獨唱 웃은밤 八、齊唱 흐르는人形 九、同 참새學校 伴奏 趙京熙 牧丹會 指揮 吳千順
◇同六時五五分 經濟解說 全弘燮
◇同八時○分 音樂講話 朝鮮音樂基本律動과伽倻琴散調에對하야(一) 李基世
◇同八時三○分 怪談 九龍山의怪奇 金永煥
◇同九時 獨唱 一、芬蘭의森林 芬蘭民謠 二、오ー스산나…米國民謠 三、초생달…權泰浩作曲 四、에르살렘…멘델스존作曲 五、알로하오에…하와이民謠 六、思鄕歌…權泰浩作曲 權泰浩 伴奏 金聖南
◇同九時四五分 唱劇調와伽倻琴倂唱─釜山公會堂으로中繼ー 一、唱劇調 王日然하다 二、短歌 大觀江山 三、伽倻琴倂唱 客懷問我 鷹來券番 朴秋月 同 林月仙 同 朴雪香

二十三日(火曜)

◇午後○時五分 映畵이야기 오버드린
◇同二時 婦人講座 여름철衣服裝 趙曉天
◇同六時三○分 童話 꿈에맛난人魚 金永愛
◇同六時五五分 經典解說(一) 高在天
◇同八時 音樂講話 伽倻琴散調에對하야(二) 李基世 朝鮮雅樂會 張濬
◇同八時三○分 伽倻琴散調와竝唱 一、散調 (가) 진양丘 (나) 중모리 (다) 자진모리 二、倂唱 (가) 短歌 大丈夫 (나) 唱劇調 바다령 姜太弘 鼓手 韓成俊
◇同九時 才談과俗曲 一、平壤歌 二、四節歌 三、장님타령 四、才談 노래가락 五、才談 창부타령 具載會 李山玉
◇同九時三○分 라디오·드라마 暴徐의아들 全一幕(配役) 香…申桂民 父…金相和 母…南宮仙 妻…朴魯多 어느男子…崔保羅 放送劇研究會 指揮 張石壽 效果 效果班

曆

七月廿二日(月) 舊六月廿二日 己亥·木·張定
●祭祀·冠帶時刻은午時坐向은東北·移徙·裁衣·上梁午時·納財에 吉
▲小暑 八日(舊六月初八日)
▲初伏 十三日(舊六月十三日)
▲中伏 廿三日(舊六月廿三日)
▲大暑 廿四日(舊六月廿四日)

瑞山 本社三大記念 映畵의밤

▲時日 七月二十二、三兩日每夜八時半
▲場所 瑞山邑內
◇主催 朝鮮日報社瑞山支局
◇後援 向上映畵社、瑞山樂隊

海美 本社三大記念 映畵의밤

▲時日 七月二十四、五兩日每夜八時半
▲場所 海美邑內假設劇場
◇主催 朝鮮日報社海美分局
◇後援 向上映畵社、瑞山樂隊

工費二千圓으로 興南市街道鋪裝

【興南】 질소회사가 창설되이래 호수와 인구로비약적 발전을하고잇는 흥남읍도로는 비가오면 니탕(泥湯)으로 왕래에곤난하든바 읍당국에서는 일천원의 보조신청을하엿든바 인가가되야 불원에 총공비 이천원으로 흥남여에서 조질회사로 통하는 도로약칠백미돌에 포장공사를착수하리라한다

平壤『킹』택시부ー 運轉手罷業斷行
待遇改善等을要求

【平壤】 평양교통계(交通係)의일부를 점령하고잇는 평양부내수정(壽町)『킹그』자동차부 운전수십륙명중 일본내지인 이명을제하고 전부가 이십일부터 동맹파업을 단행하엿다 수일전부터 동요가잇서오든중 십구일에이르러문제는 로골화하여 점심시간을 리용하여 대우개선(待遇改善)을주창한 네조목의 요구서를 주인 금정우차랑(今井祐次郎)씨에게 제긔하고 회답을 기다리든중 이십일아츰까지 하등회답이 업서 파업을단행한것으로 동자동차부는 평양역구내영업을맛터하든것으로 교통계에밋치는바 영향이적지안는데 문제가앞으로엇더케 전개될는지매우주목된다한다

企待中에잇는 惠山鐵道着工

【惠山】 함남혜산진은신흥국경도시로서 수년이래로 장족의발전이되야재이라진이라고까지 이름하게되엿스나 다만혜선철도가되지못한것만은일대유감으로잇든바 지난오월에철도당국에서정거장위치결정을비롯하야 부지매수까지완료하엿스므로 지난이십일부터 청부업대창조(大倉組)에서 철도공사를착수하엿다한다

鐵山邑에電話架設

【鐵山】 평북철산군읍내에서는오래전부터 현안이되여잇든시내전화가설이실현되어 십륙일부터가설공사에착수하엿다는데 오는팔월에는통화하리라고한다

龍興簡易學校 十五日에開校

【博川】 오래동안 현안중에잇든 평북박천군 박천면 룡흥간이학교(博川郡博川面龍興簡易學校)는 지난십오일에 개교를 하엿다는바 금번이학교설립에는 당지유지 서병식(徐炳植)오순건(吳淳健)서병오(徐炳五)삼씨의 노력이 크다고하며 특히 강종중(宗中)에서는 그의자산을 거이다기부하여 이가리입교를 완성시키엿다고하는데 기부금액과 씨명은 다음과가다고한다

千五十圓 朴川徐氏宗中 四百圓 徐相永 百圓式 永川李氏宗中 南陽洪氏宗中 扶餘陳氏宗中 延安金氏宗中 海州吳氏宗中

西朝鮮球大會 大盛況을豫期

【博川】 남중동보건사(南中洞保健會)주최와 본보박천지국후원으로 개최되는 제이회서조선축구대회는 오는이십사일에 박천남흥동만부운동장(博川南興洞滿部運動場)에서 개최한다는바 신입금은 매단체이원이고 우승팀에는우승긔외에 러비이십원을제공한다는데 벌서부터 인긔는비상히고조되여 동대회는 실로장판을일울것이라고한다

李鍾秀氏의特志

【運山】 평북룡천군외하면남하동(龍川郡外下面南下洞)리건수(李健秀)(二三)씨는 금번자긔동리래배당신축비로이천이백여원을단독부담하엿다는바 일반시자들은 그의독지에대하야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鐵山商工組創總

【鐵山】 평북철산군 읍내에서는 유지제씨의발긔로 철산상업 발전을위하야 상공조합 창립을발기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십오일정오에당지공회당(公會堂)내에서 동조합창립대회를 개최하고림시의장 리원갑(李元甲)씨사회로다음과가튼 임원선거와 규약을 통과시긴후 동륙시경에폐회하엿다한다

組合長鄭龜河 副組合長李元甲 專務理事金益庚 商業部長崔希洙 工業部長文鳳周 監査尹基鉻 李元昌 李勳益 理事鄭景元 金在暎 金東昱 李枝運 崔學洙 文鳳周 林炳斗 金洛瑜 崔希洙 金益庚

그女子의一生 【164】

방랑편 春園作 夕影畵

신랑신부가 들어올때에 다달앗을때에는 사방으로서 악수의 손들이 잇섯고 금봉의 입에는 하나도 아니와면 ○○며 자고보 직원들과 교우들과학생들까지 모두 떨어오고 교우대표의 축사랑두까지 잇섯다。을남이와 숙희와 서정희에 대하여서도 다 반가워하고 존경하는 표를 보이지마는 금봉에게 대하여서는 더러 마지못하야인사하는 사람이 잇슬뿐이엇다。여자들은 마치 무슨 더러운전염병자를 대하는 모양으로 금봉과 눈이 마조 치면 고개를 돌리고 몸을비켯다。그깨끗한몸들이 어떠케 참아금봉이와가튼 더러운것과 접촉하랴 하는듯하엿다。

『저의들은 무어이길래』

하고금봉은 강하게반감을일으켜 보앗다。

금봉은 도저히 피로연에 참예할용긔가 업서서 형식더러아프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와다。

는 동정하여 주는 사람이 엇다。사람들은 흔히 형식을 이현령 비현령 이라고 하기도하고 건달가티 생각하는 이도업지아니 하지마는 그는 언제나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또 언제나 대의를 잇지아니하는 사람이라고 금봉은 믿는다。옥남은 미친년이라고 생각하는 때도 잇지마는 형식만은 마음놋코 밋을수잇는、또 밋는 보람잇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엿다。허량한듯 하면서도 찻을 제는 다 찻고 희미중인체하면서도볼것은다보고 별로누구허구는쟁을 하거나 제 고집을 세우려는빗도 업스면서도 세상을 나려다보는 사람이엇다。

그러나、형식의 위로하는 말로도 금봉은 위로가되지아니하엿다。오늘 하로에 겪은 일이 천년만년두고 겪글 못겪글 일을 다겪근듯하엿다。일즉은 세상에서 칭찬과 부려움의 목표가 되어던 그가 인제는 세상의 멸시와 조롱의 웃음거리가

밤에형식이가 술이거나하게취하여서 금봉을차저왓다。

『대단히 아파?』

하고 마루끗에안저서 금봉에게 물엇다。

『괜찬아요、치운데 들어오시지오』

하고 금봉은 쓰고 두러누엇던 자리를 밀어노코 문을 열엇다。

『어서 문을 닷어。나는 피로연 끗내고 가는 길에 들럿서 어떤가 하고』

하고 방에는들어오지아니하고

『딘어 마음스고생 말어。영자가 좀 샘이 나서 그러지마는 인제 혼인까지 햇스니깐 어떨라구。도세상 사람들이 금봉을 보고 환영을 아니 하기로 그것이 대순가。저희들은 다 백로가티 깨끗한체 하지마는 속들을 들처보면 까마귀들이어든 금봉이가 저희들보다 아름다우니깐 모두들 샘이 나서 그러는게지。원체 세상이란 환영한다고 깃블것도 업고 배척한다고 슬플것도 업는것이야。그러니깐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구』

이 모양으로 혼자 지꺼리고는

『괘니 쓸데업는 걱정말고 잘 자』

하고 가버렷다。

금봉은 형식의 친절이 고마웟다。언제나 그러치마는 그는 사람의 속을 잘알아 주고알고

되고만것을 아프게도 깨달앗다

『홍。저의들은 무어이길래』

하여보지마는세상이라는 무정하고도어마어마하게 큰물건의압박은금봉을등심스뼈와 갈비대가 욱우러저리 하도록 나려누르는것 가탓고 그것은 마치 악악소리를 내고 들어오는 바람과 가티、또는 물스결과 가티 도저히 개인의힘으로는 배겨내지못할것 가탓다。이 몽동이로 엇어맛는듯한 아픔과 그리고도다음번으로 나려올 몽동이가 머리우에 들려잇는듯한느낌은 도모지 금봉에게 잠들기를 허하지아니하엿다。

『인제는 임선생도 가고 세상도 갓다。나 혼자마죽어버린 전염환자의 자리옷 모양으로 흉가된 비인 집에남아잇고나』

이러케 금봉은 생각하엿다。이러한 정신적 타격은 임신중인 금봉을 생리적、심리적으로 더욱 괴롭게하엿다。입맛은 더욱 떨어지고 구역은 더 나고 팔다리는 더쑤시고 잠은안오고、어쩌어찌 잠이들면 뒤숭숭한 꿈만 만핫다。

학재가 혼인한지 한 십여일후에 옥남이가 와서영자가 내외싸홈을 하고 울며 친정으로 뛰어와다는 말을 하엿다。옥남의 말에 의하건댄、옥남이가영자의 하소연을 들은 말이라것은 이러하엿다ー

新案特許 興字標打綿機元祖

京城府生産品評會優秀賞牌 朝鮮博覽會優秀賞牌 興字標新型打綿機 新案特許 受領

本標 外色 (カタログ進呈)

絶對他機械의 追隨를 不許

興字標打綿機製造所 京城府昌信洞三一五番地 電話(光)二一六六番 主 李重宜

漁具 秋岡商會 京城明治町一丁目派出所前 電話本局四三九〇 振替京城二二一五六 定價表進呈
極上等 五分目 二寸目 金八圓也 / 綿投網 四分目 二寸目 金六圓也 / 捕鳥網 三分目 三寸目 金五圓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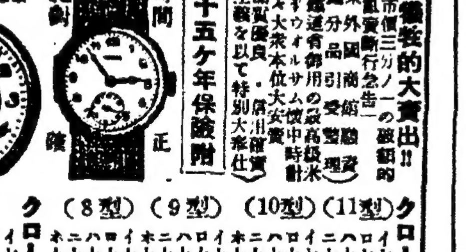
耳鼻病即効藥新發賣

鼻 耳

醫師에게治療를바기前에 나답은藥으로 써 꼭 最新療法인 大林耳專門藥과 鼻專門藥을 試用하십소서【定價】三十錢 五十錢 (全國各藥房에서販賣)
發賣元 東京市小石川區小日向水道町 大林製劑部

水虫に ポンホリン (폰호린)
빨이잘듯고 爽快한液劑 하로한번발느면充分 藥價 一回以上은液劑 四十錢 六十錢 一圓五十錢 全國各藥店에잇습 무좀을업새리 製造元 株式會社 塩野義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日本橋區本町

筆生 遠近男女의分別업시自宅에서無리업시되는趣味와實益을兼備한 學生 婦人 ... 依賴하면適當한일을 詳細通知 大阪天王寺北河堀町 盛文社



驚異的大賣出!! 十五ケ年保險附 引送料 代引 ... セイコーシヤ 地方時計部 東京市淀橋區

SANKYO 三共
脚氣에 オリザニン
오리자닌

脚氣에オリザニン을쓰시고 속히治癒되얏다는것은 多數實驗諸家의 報告에照鑑하야도疑心할餘地업는바이다……
オリザニン은 또 脚氣外人體에必須의副榮養素로써 여러가지境遇에 實用된다 (1) 熱性病者의榮養保持에 食慾不振에 (2) 妊娠便秘妊娠嘔吐에妊産婦脚氣에 (3) 泌乳不全에 (4) 虛弱兒의健康並發達增進에……
(5) スポツマン의心體力保持에。疲勞恢復에……
三共藥品의定價와簡單한說明과를揭載한 冊子『三共の藥品』잇습所用되시는분은 朝鮮日報名記入申込次第贈呈함
錠、エキス、散、末、注射液 各種 (說明書進呈)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イボ·魚の目·タコなら 手術不要 樂々とれる イボコロリ 藥價 30 50 100 大阪市西區京町堀 小林大藥房

塗つてニッコリ薬のキメ タムシチンキ (다무시친기)
水虫たむしいんきん 浸透性 深達力 療法 小林
爽快! 爽快!
참으로 잘듯는다! 고하는말은한번발너보신분은다말하는讚辭입니다
그럴일이다。 다藥劑에比하야浸透性深達力과殺菌力이强하게皮下의潛伏菌까지도殺菌식힌다。
其發育을抑制하고 부어서헐어진데를消毒保護하야서새로운健皮를再生식혀氣分조케治療하는것은本劑의特長이다。
살작한 번발너보시면아조爽快하게되다。
小林大藥房 大阪京町堀 名古屋廣小路 藥店 デパートにあり 藥價 20 30 50 1.00

夏は克服よ

只今！

令孃들께 한분도빼지안코

乙女ケース(케ー스)進呈

이름도귀여운 乙女ケース

乙女에게 드림

타오르는珊瑚의色調
乙女다운純情을表徵한
젊고도로맨틱한仁丹容器
핸드빽의속에반드시너허두어야할것

그때문에、特히短期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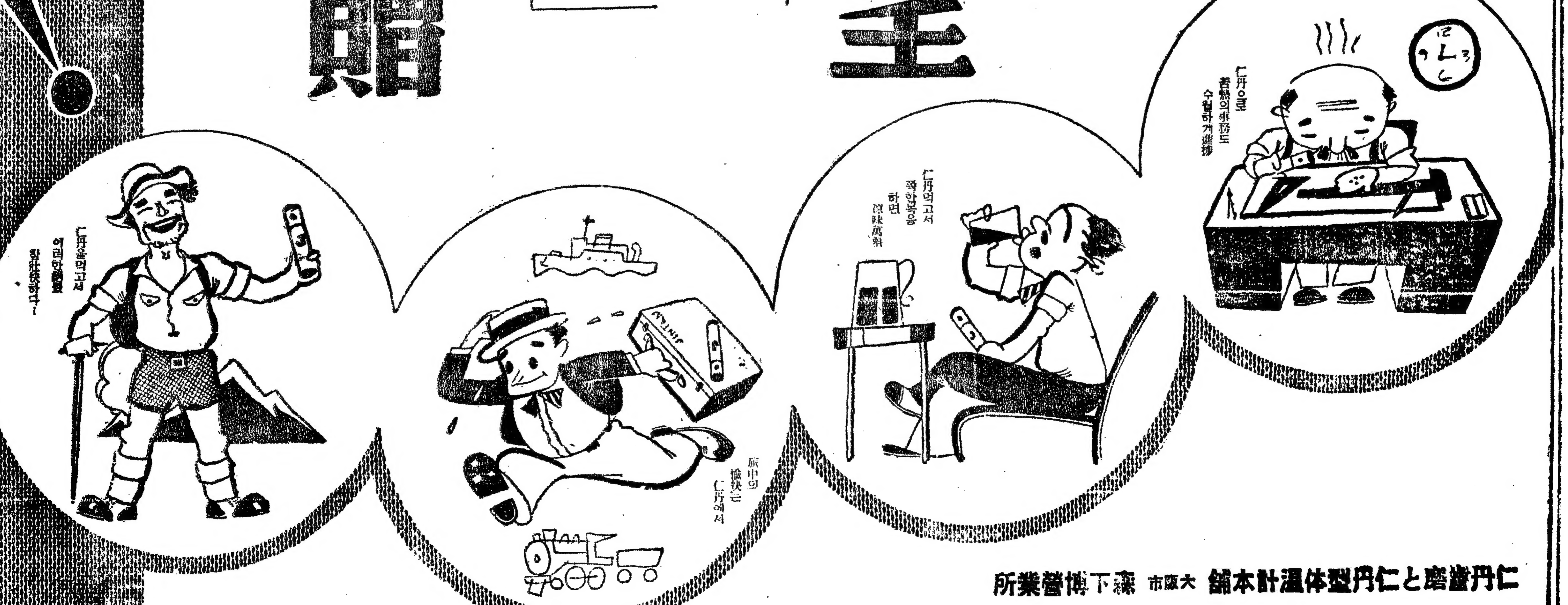
十錢包(ローズ仁丹)에添贈

百五十粒入

各人必須의姉妹容器

學生에는 滿洲容器로 (銀粒三十錢包에添附)
紳士用으론 日滿ケース로 (赤小粒五十錢包에添附)
婦人에는 透明容器를 (赤小粒三十錢包에添附)
老人에는 瓶入德用을 (銀粒五十錢包에添附)

今……(只今) 仁丹是非必要！



仁丹歯磨と仁丹型体温計本舗 大阪市 森下博營業所